



EMBARGOED UNTIL 12:00 Hong Kong (06:00 CET / 05:00 BST/ 04:00 UTC) – Tuesday 28 October

2025년 IPSOS글로벌 설문조사 결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후변화 우려 수준 ‘엇갈려’

2022년과 2025년 모두 조사에 포함된 국가들을 비교해보면, 일본과 태국은 크게 상승한 반면 다른 국가들은 하락세를 보였으며,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려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홍콩, 2025년 10월 28일) – Forest Stewardship Council(국제산림관리협의회)가 오늘 총회에서 발표한 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가 기록상 가장 더웠던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중의 우려는 국가별로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 입소스(IPSOS)와 함께 50개국, 4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글로벌 소비자 인식 조사(Global Consumer Awareness Survey) 결과, ‘전쟁과 분쟁’(52%)이 가장 큰 공공의 관심사로 떠오른 반면,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는 31%에 그쳤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엇갈린 기후 인식

이번 2025년 조사는 아태지역에서 새롭게 베트남과 뉴질랜드를 포함해 10개국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50개국 중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아태 지역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9.5포인트)를, 태국이 그 뒤(+7포인트)를 이었다.

반면, 호주(-8.5포인트)와 중국(-7포인트)은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조사에 포함된 아태 주요 국가 중 절반은 우려가 상승한 반면, 나머지 절반은 하락세를 보이며 지역 내 인식의 불균형을 드러냈다.

한편, 산림 관련 질문에서는 일본(41%)과 인도(40%)에서 ‘산림 파괴’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며, 호주는 ‘동식물 종 손실’(46%)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

베트남(41%)과 인도네시아(40%)에서는 가뭄과 홍수에 대한 우려가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인도 대비 약 두 배에 달했다.

중국(37%)과 인도(26%)에서는 ‘토양 황폐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대중 인식 제고 캠페인과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 FSC 사무총장 수브라 바타차르지(Subhra Bhattacharjee)는 “아시아-태평양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산불, 수자원 부족, 생물다양성 손실 등 구체적인 산림 위기를 체감할수록 관심이 높아지고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실질적인 실천입니다. 독립적으로 검증된 산림 파괴 없는 공급망, 지역사회 참여 시 사전 동의 및 정보제공 원칙 존중(FPIC), 그리고 고위험 지역의 보호구역 설정 등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을 보호하고, 공급망의 위험을 줄이며,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후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산림은 여전히 ‘기후 위기의 최전선’

50개국 전체 조사에서 ‘기후변화’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지만, 산림 관련 세부 문항을 받은 국가에서는 ‘종 손실’, ‘산림 파괴’, ‘산림 손실로 인한 기후 영향’ 이 주요 우려 사항으로 꾸준히 상위권에 올랐다.

특히 일본과 한국은 ‘산림 손실로 인한 기후 영향’ 항목에서 전 세계 평균보다 약 10포인트 가량 높은 우려 수준을 보였다.



또한 두 나라는 2022년 대비 ‘산불’에 대한 우려가 모두 상승했지만, ‘자연림 손실’에 대한 인식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 42%, 일본 15%).

이러한 결과는 산림 보호가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기후 대응과 공급망 안정성을 위한 핵심 과제임을 보여준다.

소비자, 여전히 구매 단계에서 행동으로 이어져

29개국 응답자의 72%가 “동식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제품을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이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도 높은 인증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FSC 아시아·태평양 지역 디렉터 신디 청(Cindy Cheng)은 전 세계 소비자의 약 3분의 2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는 독립된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고, 특히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이러한 요구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브랜드가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일상 속 구매가 숲과 지역사회를 지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확신을 줄 기회이기도 합니다.” 라며 기업이 나설 차례임을 강조했다.

아태지역 소비자들은 점점 더 기후 가치를 구매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 베트남(63%), 태국(61%), 중국(60%), 인도(59%), 인도네시아(54%)에서는 FSC 라벨 인지도가 글로벌 평균(52%)을 상회하였고, 특히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2022년 대비 큰 폭의 성장을 보였다.

기후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 왜 중요한가

전쟁, 전 세계적 유행병, 물가상승이 주요 사회 이슈로 부상하면서 기후변화는 정치적 및 소비자 관심에서 밀려날 위험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은 여전히 지속가능한 제품을 원하며 특히, 동식물 종의 손실이 산림 관련 최대 관심사인 만큼 기업이 산림 파괴에 기여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길 기대하고 있다.

이에 FSC는 환경·사회·경제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을 통해 위기 속에서도 기후 대응 방안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결과들은 이번 주 FSC 총회(General Assembly)에서 논의되며,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책임 있는 산림경영의 미래와 기후 위기 대응에서의 역할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편집자 참고 사항

- 조사 범위: 2025년 아시아·태평양 표본 10개국(베트남, 뉴질랜드 추가)
- 비교 기준: 2022년과 2025년 모두 조사된 국가만 비교 (일본 +9.5, 태국 +7, 호주 -8.5, 중국 -7)
- 글로벌 주요 결과: 전쟁·분쟁(52%), 기후변화(31%)
- 한국: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 우려 수준 1위
- 산림 관련 문항은 29개국 대상, 일반 문항과 표본이 다름
- 소비자 선호 72% 수치는 29개국 기준

FSC 개요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는 책임 있는 산림 관리를 위해 검증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억 5천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FSC 기준에 따라 인증되었다.

FSC는 산림 파괴, 기후 변화 및 생물 다양성 손실 등 오늘날의 주요 환경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NGO, 소비자 및 기업 모두에게 가장 엄격하고 신뢰받는 산림 인증 제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FSC의 산림 관리 기준은 환경적, 사회적 및 경제적 요소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설계된 10가지 핵심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FSC의 '체크 트리' 모양의 라벨은 수백만 개의 산림 기반 제품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이 숲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조달되었음을 보장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 FSC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ttps://www.kr.fsc.org/en>

조사 개요

이번 설문조사는 국제산림관리협회(FSC)와 글로벌 리서치 기관 입소스(IPSOS)가 공동으로 진행한 2025 FSC Global Consumer Awareness Survey의 일환이다. 총 50개국에서 4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산림 관리, 기후변화,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10개국이 포함되어있다.

언론 연락처: Faya Davranbekova - f.davranbekova@fsc.org